

【붙임 2】 공모전 계획서

우리가 만드는 비교과프로그램 “우만비” 공모전 계획서

구 분	내 용					
해당 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생학습지원 <input type="checkbox"/> 진로·심리상담지원 <input type="checkbox"/> 취·창업지원					
프로그램명	개신동 감정예술센터					
핵심역량 (%)	C(창의성)	H(휴머니즘)	A(능동성)	N(공동체)	G(글로벌)	E(전문성)
	0	20	30	20	30	0
추진 배경	<p>○ 2020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인 2019년도까지 국민의 문화예술행사 직접 참여 경험률은 꾸준히 소폭 증가하였음. 2008년도에는 2.4%가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했다고 응답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10.4%가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했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문화예술행사 참여 의향 또한 2008년에 6.5%에서 2020년도에는 17.8%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음.</p> <p>○ 이처럼 국민의 문화예술 수요 및 문화예술 교육 제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은 부족한 실정임. 특히, 수도권과 지방 도시 간의 격차가 큰 편임. 2019 공연예술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공연장 1,324개 중 47%인 634개가 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어있으며, 충북지역에는 122개로 그 수가 수도권과 비교하여 매우 부족한 편임.</p> <p>○ 또한, 한국 국민의 문화생활은 영화에 편중되어 있음. 2020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3%가 문화예술행사 중 영화를 관람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문화예술 관련 지출에서도 영화 관련 지출이 18.6%로 가장 많았음.</p> <p>○ 충북대학교는 대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이 전무한 실정임. 교과 수업 이외에 비교과 역량을 기르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이 취업 관련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화 또는 인문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교과수업과 큰 차이 없이 운영되고 있음. 또한, 교양강의 영역은 수업 참여자가 예술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강의식 수업으로 이뤄져 있어 사실상 현재의 문화예술교육과는 거리가 있어 보임.</p>					
목적 및 필요성	<p>1. 프로그램의 필요성</p> <p>○ 대학교의 활동(교과수업, 비교과 프로그램, 교양 수업 등)은 대부분 교과에 치중되어 있으며, 강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는 교과 전문성을 기르기에는 적합</p>					

하지만,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기르기에는 부적합함. 따라서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한 새로운 종류의 비교과 프로그램이 절실한 상황임.

-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 및 교류, 자발적인 학생활동이 어려운 상황임.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 또한 존재함.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며 서로의 벽을 허물어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본 프로그램은 그에 적합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2. 프로그램의 목적

- 첫째로, 본 공모전에서 제시하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 표현이 서투른 현대인, 의사소통 경험이 작은 코로나 시기의 대학생들에게 정서를 표현하는 예술을 경험하고, 직접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의사소통력 및 예술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함.
- 둘째로, 프로그램 내에 있는 시각예술, 미디어 예술 등의 여러 예술 요소를 접하며, 영화 이외의 다른 문화예술 매체의 가능성을 경험하고, 이후 대학생들이 다차원적으로 문화예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 셋째로, 프로그램을 통해 충북대학교의 6대 역량 중 능동성 역량, 글로벌 역량, 휴머니즘 역량, 공동체 역량을 길러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넷째로, 지역사회 기관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충북대학교를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세부 추진 계획

1. 추진 관련 부서

- 본 프로그램의 교내 추진 관련 부서는 창의융합교육본부를 선정하였으며, 교외 추진기관으로 충북문화재단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선정하였음.
- 창의융합교육본부가 본 프로그램 주무 부서의 후보임. 창의융합교육본부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추구하는 학부 교육기관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소관하기 가장 적절한 부서라고 할 수 있음. 본 프로그램이 시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창의융합교육본부의 의사소통 교육센터가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조직 내에 새로운 부서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충북문화재단 내 예술교육팀-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정한 지역 예술교육센터로 충북도민 모두가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자원 활용 및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중임.

- 본 공모팀은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김종희 과장과 협의하여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두 협약을 마친 상태임 (043-224-9142).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전문 강사, TA),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장소(대형 회의실), 기타 프로그램을 위한 자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음.

2. 프로그램 대상 및 교육 방법

- 프로그램의 교육대상은 충북대학교 1~4학년 재학생임. 문화예술교육은 전공과 학년 무관하게 모두가 참여하여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충북대학교 재학생이면 모두에게 참여 자격을 부여하려고 함. 인원은 재학생 16~20명으로 구성하여 조 구성 등 세부 사항은 문화예술교육 강사와 협의하여 정할 예정임.
- 교육 프로그램의 장르는 참여자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도록 특정 성격으로 고정하지 않았음. 다만, 참여자가 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소감을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문화예술교육사 1명이 운영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달 주체를 일대다(1:N), 교육방식을 참여형 (피드백, 질의응답, 토론)으로 한정하였음.

3. 프로그램 운영 개요

- 프로그램명은 ‘개신동 감정예술센터’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과 정서를 외부로, 특히 예술로 표현하도록 도움을 주는 가상의 행정기관을 구상하여 작성하였음.
- 프로그램은 4주를 하나의 주제로 묶어 운영하며, 학생은 프로그램을 월마다 신청해서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따라서 프로그램마다 참여하는 인원이 다름. 또한, 프로그램마다 주로 사용하는 예술 기법이 다르므로 프로그램마다 초빙하는 강사도 다름.
- 참여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본 공모자와 전문 강사가 모든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 보다, 참여하는 학생이 프로그램의 구성내용을 같이 설정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취지와 부합하므로 프로그램 주차 별 세부 내용을 고정하지 않았음. 그러나, 가이드라인 없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그 방향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프로그램별 중심 활동을 설정하였음.

- 프로그램(안)은 추후에 전문 강사가 섭외됨에 따라 그 안의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전문 강사와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구상할 예정임.

4. 세부 추진 계획

-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및 세부 시행 계획은 다음과 같음.

- 프로그램명 : 개신동 감정예술센터
- 교육 목표 : 정서 표현이 서툰 현대인, 의사소통 경험이 작은 코로나 시기의 대학생들에게 정서를 표현하는 예술을 경험하고, 직접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의사소통력 및 예술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함.
- 교육 장르 : 참여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분/ 유형	콘텐츠형	대화형	커뮤니티형
전달 주제	일대다(1:N)	일대일	다대다
전달 방식	콘텐츠	대화	커뮤니티
전달 과정	가이드	협력	공동창작
교육 목표	독려/장려	참여	놀이
교육방식	강의 강자	피드백, 질의응답	토론

- 장소 : 충북대학교 학내 또는 충북문화재단 소속 기관
- 기간 : 1달 4회차 프로그램 x 7달, 달마다 참가자 모집 (1회 참여하면 4회차 프로그램 이수)
- 접수 방법 : 충북대학교 CIEAT 비교과 프로그램 포털
- 예산 : 총 12,600,000원 (예정)
 - 강사료 : 150,000원 x 2시간 x 28주 = 8,400,000원 (충북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2급 강사 강사료)
 - 강사 교통비 : (충북문화재단~충북대학교 기준) 같은 시군구 내에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음. (충북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 프로그램 진행료 : 회차당 150,000원 x 28주 = 4,200,000원
- 월별 교육 프로그램 계획(안)

회차	프로그램명	예술 기법	프로그램 설명
----	-------	-------	---------

	1	기쁨의 세레나데	연극, 음악	사람에게는 기쁜 일이 종종 있다. 종강했을 때,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 게임에서 승리했을 때 우리는 모두 기쁘다고 말한다. 그런데,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 느끼는 기쁨과 게임에서 승리했을 때 느끼는 기쁨은 같은 기쁨일까? 어떤 기쁨이 더 기쁨의 정도가 클까? 우리가 느끼는 여러 종류의 기쁨을 구분해보고, 그것을 표현하는 다채로운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2	청년 우대 정기분노 적금	문학	모든 사람이 다 그럴겠지만, 유독 청년은 분노를 쌓아두고 살아간다. 뭇사람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를 받아 낼 수 밖에 없는 청년의 시기, 억울하지만 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청년'일 것이다. 그렇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는 어느샌가 청년 우대형 정기분노 적금이 가입되어 있다. 이 상품은 이율이 꽤 높아서, 분노는 쌓일수록 더 불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분노하고 싶지만, 분노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차분하게 글씨를 써 내려가면서 분노를 표출해보는 건 어떻게? 매일매일 분노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언젠가 정기분노 적금이 바닥나서 해지하는 날도 오게 되겠지.
	3	폴라로이드가 찍어낸 슬픔	사진, 회화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작스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다. 오늘 마주친 노을이 많은 눈물을 흘렸던 날의 일몰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현듯이 찾아온 감정을 나는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걸까. 울어야 할까? 정색해야 할까? 이런 감정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일까. 사진첩에 들어있는 폴라로이드처럼 케케묵은 감정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과거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이런 감정도 표현해보자, 그것도 감정이기 때문에.
	4	즐거움, 그 쓸쓸함에 대하여	회화, 미술	즐거움이 마냥 신나고 즐겁기만 한 것일까?, '오늘 즐거웠어.'라는 말에는 어떤 함축적 의미가 담겨있을까? 파티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느끼는 이상한 고독감, 여행을 가기 전부터 설레오는 마음과 신나는 느낌. 이런 것들도 즐거움 일부일 수도 있겠다. 이런 감정도 표현할 수 있게 개신동 감정표현 센터에서 도움을 줄 것이다.
	5	사랑,	판화	우리는 각자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 눈빛, 대화, 입맞춤, 팔짱, 포옹 등. 우리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

				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며, 사랑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의 사랑을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6	증오가 그려낸 풍경	패션	증오로 인해 생겨난 사회갈등 문제. 혐오, 소통의 부재.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문화 속에서 사는 우리. 증오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이다. 그리고 그런 감정은 폭력적인 행동을 낳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을 욕, 폭력으로밖에 해소할 수 없을까? 폭력적이지 않은 증오심은 존재하는 것일까?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다른 감정들과 같은 자리에 앉혀둘 수 있는가? 증오가 그려낸 우리 사회 속 풍경을 살펴보고, 내가 느끼는 증오의 감정으로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
	7	백색 욕망	시각	왜 백색 욕망인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욕망은 가치중립적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두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추동이다. 그런데, 그 감정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방향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욕망을 억누르고만 있으면, 우리와 인공지능이 다른 점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욕구와 욕망은 어떻게 표출해야 할까? 욕구가 원하는 대상이나 목표를 그대로 취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방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방법 아닐까? 우리는 가끔 그들이 추구하는 욕망의 방향과는 전혀 다르게 욕망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 '백색 욕망'에서는 욕망의 건전한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주차 별 교육 프로그램(안)				
3월의 프로그램				
3. 폴라로이드가 찍어낸 슬픔(사진, 회화)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작스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다. 오늘 마주친 노을이 많은 눈물을 흘렸던 날의 일몰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현듯이 찾아온 감정을 나는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걸까. 울어야 할까? 정색해야 할까? 이런 감정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일까. 사진첩에 들어있는 폴라로이드처럼 케케묵은 감정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과거				

	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이런 감정도 표현해보자, 그것도 감정이기 때문에.		
		이름	활동 내용
	1	개강 파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가 생각하는 '슬픔'을 구성원들과 공유하기 - 가장 슬프다고 생각되는 사진을 가지고 와서 구성원들에게 설명하기
	2	슬픔 네 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가 생각하는 '슬픔'과 슬프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사진을 찍어 기록을 남겨오고 참여자들과 함께 상황을 공유하기 - 슬픔을 주제로 화보를 찍기 : 각자가 '슬픔'이라는 감정을 이입하고 배경과 포즈를 선정해서 사진을 찍은 후, 자신은 어떤 감정으로 사진을 찍었는지 구성원들과 공유하기
	3	나의 슬픔 표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픔을 표현하는 그림을 스케치하기 - 스케치한 그림을 토대로 슬픔을 표현하는 사진을 찍기
	4	슬픔에 웃으며 인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플 때 찍었던 1~2주 차 다시 보고 소감을 말하기
* 청색 글자는 참여자의 참여에 따라서 설정되는 부분으로, 표에서 언급된 내용은 예시로 제시된 것임. 실제로는 전문 강사와 참여자들 간의 의사소통으로 프로그램을 결정			
기대 효과	<p>○ 활동을 통해 충북대학교가 추구하는 직지의 창의 정신을 품은 개신인재를 길러낼 수 있음. 개신인재가 갖추어야 할 6대 역량(New-CHANGE) 중 능동성 역량, 글로벌 역량, 휴머니즘 역량, 공동체 역량을 기를 수 있음.</p> <p>○ 능동성 역량의 '성장 지향성'과 '자기효능감'을 기를 수 있음. 평소에 쉽게 접하지 못하는 예술작품을 접함으로써 대학 생활만으로는 기르기 어려운 역량을 기를 수 있음.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다방면으로 자기 계발 하여 자신의 능력을 기르고 그 능력에 대한 신념을 가지기를 기대함. 미적 소양을 기르고 일상에 접목하여 호기심을 가지며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도전 의식을 기를 수 있음. 또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p> <p>○ 글로벌 역량의 '문화 민감성'과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음. 서로 다른</p>		

	<p>환경에서 생활하는 개인과 집단의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소통을 통해 문화를 교류하며 공감대를 형성함. 다양한 의견을 접하며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상대의 의견에 공감하며 다양한 가치, 규범을 이해할 수 있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를 가진 작품을 감상하며 기존에 가지고 있는 편견을 지우고 모든 문화와 예술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길러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꾀함.</p> <p>○ 공동체 역량의 '의사소통 능력'과 '조율·협력'을 기를 수 있음.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구조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상대방과 소통하는 능력을 기름.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협력의 중요성도 인지할 수 있음. 또한, 상대의 의견을 이해 및 수용함과 동시에 자신의 의사나 감정도 명확히 표현, 전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는 능력을 기를 것으로 기대함.</p> <p>○ 휴머니즘 역량의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고 많은 사람과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름. 또한, 예술작품에 비춰 본인의 안식을 기르며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함.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 본인의 의견을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함.</p> <p>○ 더하여, 본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지역사회와 지역거점국립대학교 간 교류의 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 충북문화재단의 다른 예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기관, 타 대학과 교류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의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청주시역 내 다른 대학교(청주대학교, 서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등)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교류도 기대할 수 있음. 본 공모자는 국립청주미술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시립미술관 3곳의 기관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협조 요청을 구두로 받아 내었음.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확대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p>
--	---